

## News & Issue

### 뉴스와 쟁점

## 칠레의 대학 입시

### 민원정

바첼레트 대통령이 약속한 무상교육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2016년 4월 중순, 2017년 대입선발시험 요강이 발표되었다. 대입선발시험은 칠레대학교의 교육평가처가 주관하는데, 칠레대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대학교에서 이 시험 성적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칠레의 대학입학시험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칠레대학교 교육평가처는 1967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했다가 2003년부터는 대입선발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두 시험의 차이는 전자는 문자 그대로 수험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했다면, 후자는 수험생의 학력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험은 중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후 응시할 수 있다.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외국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2017년 입시 일정을 보면, 4월 14일 입시요강 발표, 6월 13일부터 8월 5일까지 인터넷 접수, 그리고 11월 21-22일, 이틀 동안 대입선발시험을 치른다.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시험성적표가 나오면 수험생은 12월 13일까지 각자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데, 합격자는, 2017년 1월 9일에 발표한다.

대입선발시험을 치르는 장소는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칠레대학교 교육평가처에서 칠레 전역에 있는 시험 장소를 공고하면, 수험생이 인터넷으로 등록할 때 선택하는 방식이다. 시험은 첫날 오전에는 언어영역, 오후 2시 반부터는 과학영역 시험을 보고, 둘째 날



칠레의 대입 수험생  
(출처: <http://www.eldinamo.cl>)

오전에는 수학영역 시험, 오후에는 역사사회영역 시험을 본다. 수험생은 오전 시험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 경우가 많다.

시험 과목은 필수 2과목과 선택 2과목이다. 언어영역과 수학영역은 필수 과목이고, 과학영역(생물, 물리, 화학, 전문기술 중 택 1)과 역사사회영역은 선택 과목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사회영역을 한 과목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선택과목은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객관식 문제에서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성적은 과목마다 평균 500점, 표준편차 110점이며, 최하 150점 최고 850점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등급을 매긴다. 따라서 개개인의 성적은 다른 수험생의 성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최고 등급의 성적은 같은 해에 수험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대입선발시험의 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언어영역(필수):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80문제가 출제된다. 이 영역은 언어능력과 대학교육을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 시험의 내용은 문학작품, 비문학작품, 신문자료 등을 기본으로 한다.

▶ 수학영역(필수): 시험시간은 2시간 40분, 80문항으로 출제한다. 이 시험은 인식능력과 문제해결을 통해 수학적 추리능력을 평가한다. 선다형 문제와 주관식 단답형 혹은 복합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부터 시험적으로 다섯 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다섯 개 항목은 독해 또는 적용과 분석 또는 합성과 평가 등의 인식능력을 세 개의 난이도에 따라 평가한다. 80개 문항 중 새로 추가 된 다섯 개 항목을 제외한 75개 문항만이 점수에

포함된다.

▶ 역사사회영역(선택): 2시간 30분 동안 80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다.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과정을 이해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방법, 문서의 분석, 역사의 대조 서술, 추론, 종합 정보 등을 평가한다. 2015년에 새로이 추가된 다섯 개 실험질문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과학영역(선택): 생물, 물리, 화학, 전문기술 등이 포함되며 이 중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입학 요강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칠레의 대표적인 두 대학, 칠레대학교와 칠레가톨릭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단과대 구별 없이 최대 4개 학과를 원하는 순서대로 지원할 수 있고, 대입선발시험에서 최소 600점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만 지원 자격을 준다.

예술대학의 경우 대입선발시험 이외에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 점수는 학교성적을 대입선발시험 점수로 환산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학교마다 적용 비율이 다르다.

칠레대학교와 칠레가톨릭대학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입학 시 영어시험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영어수업을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과 장애인특별전형, 장학생선발은 대학에 따라 선발요건이 다르다.

칠레에는 대학협의회에 속한 대학교와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사립대학교, 그리고 기타 대학교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가 대입선발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협의회 소속 25개 대학교는<sup>2)</sup> 대입선발시험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학협의회 소속은 아니지만 대입선발시험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사립대학교도 많다.<sup>3)</sup>

2) 칠레대학교, 칠레가톨릭대학교, 콘셉시온대학교, 발파라이소가톨릭대학교, 페데리코산타마리아기술대학교, 산티아고대학교, 아우스트랄대학교, 노르테가톨릭대학교, 발파라이소대학교, 메트로폴리탄교육대학교, 메트로폴리탄테크놀로지대학교, 타라파카대학교, 아르투로프랏대학교, 안토파가스타대학교, 라세레나대학교, 플라야안타대학교, 아타카마대학교, 비오비오대학교, 프론테라대학교, 라고스대학교, 마가야네스대학교, 탈카대학교, 마울레가톨릭대학교, 콘셉시온가톨릭대학교, 테무코가톨릭대학교이다.

3) 예를 들면, 디에고포르탈레스대학교, 마요르대학교, 피니스테라에대학교, 안드레스베요대학교, 아돌포이바네스대학교, 로스안데스대학교, 데사로요대학교, 알베르토우르타도대학교 등이다.

한국 언론에도 소개된 칠레의 대학무상교육은 실상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칠레 국적자, 외국인 학생 중에서 칠레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자, 영주권 소지자로서 가정경제수준이 5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무상교육정책에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협의회 소속 대학교와 사립대학교 중 일부만이<sup>4)</sup> 무상교육정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학교마다 정부 지원금 정도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의 비율이 다르다. 무상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칠레에도 입시 과외가 있다. 일종의 입시학원에 해당하는 예비대학(Preuniversitario)이 있으며, 이런 곳은 중등학생부터 다닐 수 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예비대학도 있고, 사설 예비대학도 있다. 대학생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일정 지역에 유명 학원이나 유명 강사가 있을 정도로 열성적이지는 않다.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칠레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05년도 대학입학생 수는 443,071명, 전문대학입학생수는 122,652명, 기술학교입학생수는 71,50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각각 619,681명, 282,436명 131,769명으로 늘었다. 이를 전체 학생 수로 따져보면 2005년에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총 637,228명에서 2012년에는 1,033,88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증가하는 교육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교육, 그러나 한정된 예산. 지금 칠레 정부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무상교육의 문제 이외에도 초중등학교 교사의 처우 개선, 공교육 개선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바첼레트 정부의 남은 2년 동안에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해진다.

---

민원정 — 칠레가톨릭대학교 아시아학센터, 역사학과 교수

---

4) 여기에 해당하는 사립대학교는 디에고포르탈레스대학교 실바엔리케스가톨릭대학교, 피니스테라에대학교 알베르토우르타도대학교이다.